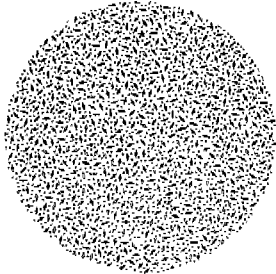


# 最近의 中東石油情勢 와 우리의 對應策

## The Current Trend in Mideast Oil Situation and Our Counter Measures



李 英 九

韓國動力資源研究所 石油政策室長

### I. 序 言

最近의 中東情勢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확정되고는 있지 않으나 케르샤만에서의 油槽船에 대한 공격은 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제 1차 석유위기의 도화선이었던 이스라엘과 중동아랍국간의 긴장도 레바논 사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의 레바논미대사관 폭발사건도 중동지역의 정치적·불안 상태를 노증한 것이며, 홍해의 기뢰폭발사고도 같은 종류에 속한다.

중동의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 세계가 우려하고 관심을 쏟게되는 것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세계석유 공급의 중심지라는 경제적 이유때문이다.

석유의 공급중단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두차례의 석유위기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한바 있다. 세계석유소비량의 5%정도만 일시적으로 공급이 중단되어도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세계경제, 특히 석유에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제활동에서 중동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중동 산유국의 정세는 석유수입국들의 경제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유정세를 검토·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 II. 最近의 中東石油情勢

현재의 세계석유시장은 약간의 공급초과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1980년이후 계속 감소되어온 석유소비가 작년 말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다. 금년에는 미국, 일본, 영국등 선진국들의 석유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OPEC산유량은 산유량상한선을 유지하거나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현물시장 원유가격이 점차 회복되는 단계에 있다. 중동에서의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석유시장상황이 1985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석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그런데 돌발적인 사태란 바로 중동의 정치적 상황

의 변화를 의미한다.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본다면, 몇가지 불안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동, 특히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경제형태는 자본주의인 반면에 정치형태는 군주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제도간에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석유수출에 의한富力의 증가에 따라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절대군주제에 대한 마찰이 증가, 정치적 불안이 높아질 소지가 많다.

이들지역의 종교는 회교가 중심이며, 이것이 왕정을 유지시켜 주고는 있으나 회교내의 종파싸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모체가 되고 있는 기독교와의 마찰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란과 이라크간의 전쟁과 레바논의 내전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며 페르시아만 국가들이 이라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은 회교도내의 종파와 이란의 패권주의와 왕정에 대한 보호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이전은 확전과 소강전을 되풀이 하다가 최근에는 상대국의 전비조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유조선이나 석유수출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8월 7일 이후 재개된 유조선공격으로 우리나라 소유의 로얄달롬보호를 비롯한 10척의 유조선이 피격되었으며, 이라크는 이란의 석유수출선적항인 하르그섬과 일본이 건설중인 석유화학플랜트를 공격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지역의 산유량도 변화하고 있다. 최근 이란의 산유량은 쿼터량을 훨씬 하회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의 對하르그섬 공격 강화에도 원인이 있으나, 전비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의 석유시장의 호전기미를 이용, 유가할인폭을 축소한데도 원인이 있다.

세계석유시장의 수급추이와 석유수입국들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해 볼 때, 중동산유국원유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자유세계의 석유 소비는 금년초의 예상과는 달리 크게 증대되지 않고 있는 반면 비OPEC산유국들은 산유량을 증가시켜 왔으며, 현물시장에서의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약세로 인해 석유회사들이 재고를 방출하게 됨으로써, OPEC원유, 특히 限界原油라 할 수 있는 중동 OPEC원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

8월중 OPEC의 산유량은 1,640만b/d정도로 쿼

터량인 1,750만b/d보다 100만b/d이상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석유수입국들은 석유의 안정공급확보를 위해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어도 공급중단이 없는 산유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산유량문제 이외에 최근 중동석유정세의 특징은 이지역 산유국들이 대규모 정유공장의 완공을 계기로 석유제품수출을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산유국들은 제품의 수출보다는 원유의 수출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에는 고용확대와 부가가치제고라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정유산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의 분석은 상반되는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 하나는 산유국의 석유제품수출이 예상했던 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유가격인상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석유에 대한 카르텔의 위력이 증가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유산업은 장치산업으로써 고용효과가 적고 부가가치창출효과도 미미할 것이고, 제품수출의 경험부족과 석유소비국의 저항과 시설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하로 투자비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원유가격의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정유산업에서의 경험이 축적되고 제품판매활동에서 어느정도의 시장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현재 각 소비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위협, 소비국의 정유시설축소를 초래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독점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전자는 단기적인 견해이며, 후자는 장기적인 견해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두가지 분석이 모두 옳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비국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석유안정공급확보상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III. 우리의 對應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중동의 석유정세는 정치적, 사회적 이유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 있는 동

시에 원유수출의 중심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석유수입선의 다변화이다. 수입선다변화는 수입상대국수의 많고 적고 보다는 지역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룹과 그룹간의 편중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 70%의 원유를 중동 지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각국가별로 보면 상당히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수입국수의 파다는 수입선다변화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중동지역에 대한 편중과 OPEC에 대한 편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원유수입선을 중동 이외의 지역과 비OPEC산유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게 된다. 왜냐하면 석유수출국들이 대부분 정치적·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원유매장량이나 산유량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원유의 질에 따라 수입선의 전환이 단기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어느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수입거래방식의 다양화인 것이다. 수입방식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장기개발수입 및 불물교환형태의 바터거래가 그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입방식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원유수입선의 편중으로부터 조래되는 공급의 불안정을 완화하고, 수입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정유산업의 합리화와 가격체계의 효율화이다. 현재 석유의 소비구조는 많은 변화요인을 잠재하고 있다. 소비가 점차 경질화되어 가고 있고, 환경보전에 대한 가치의 상승으로 저공해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구조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유시설의 신축성이 높아져야 한다. 즉 제품에 대한 수요구조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유산업은 정제시설을 고급화하고, 탈황, 脫鉛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유산업의 합리화를 이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은 석유제품가격체계이다. 가격체계가 불합리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정유회사들의 투자의욕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탈황시

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저유황제품의 판매로부터 얻어진 수익과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유인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구조의 개선으로 이러한 투자를 유발해야 한다.

셋째, 경제적인 비축의 증강과 비상시에 대비한 대책의 강구이다. 단기적인 석유위기를 극복하는 제일의 방법은 비축을 많이 하는 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축의 증강에는 막대한 고정비와 운영비가 소요된다. 비축자금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 조달되건 간에 비축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회수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비축이란 비축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과다한 비축이나 과소비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비축과 민간비축의 수준을 정격화하는 것에 앞서 비축유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과제는 세계석유시장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입수, 분석하는 일이다. 최근 정부에서 정부비축계획을 수정한 것도 현석유시장이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상시석유대책도 마찬가지로 원유의 확보전략보다는 수요관리정책인 것이다. 석유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쟁등으로 인해 석유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때 비축유를 어떠한 우선순위에 의해 방출할 것인가를 제시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대책의 강구는 경제정책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넷째, 석유소비구조의 합리화이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우리는 석유다소비업종의 조정과 효과적인 석유대체의 추진을 가속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석유자원량은 약 1.5조배럴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수준과 가격수준에서 생산할 수 있는 확인매장량은 6,500억배럴에 불과하여 앞으로 30년정도 생산할 수 있는 짧다. 따라서 석유가 갖는 특성상 꼭 필요한 부문이외에서는 가능한 한 소비를 억제해야 하며, 꼭 필요한 부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석유대체에너지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알콜, 메탄올, 오일세일, 오일샌드로부터 합성연료를 생산하여 석유를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주로 전력부문에서 석유를 유연 탄과

원자력으로 대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유연탄과 원자력의 특성상 지나친 확장은 공해, 안전성 및 부하관리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급격한 석유제품 수요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킴으로써 정유산업에서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전력부문에서의 급격한 석유대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내유전개발의 적극화이다. 이는 가장 장기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다. 자국산석유가 한방울도 없는 나라에서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외유전개발에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국회사들의 부진한 개발활동을 우리 스스로 타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해외유전에서 개발된 원유도 결국은 우리나라 국토 밖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국산원유에 비해 안정성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 본 대응책은 아주 일반적인 것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는 힘든 것들이다. 또한 소비절약을 제외하고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된다. 그만큼 소비절약의 중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빨리 자국산원유를 소비하는 날이 와야 하겠다.

\*

## • 本協會 來訪 •

### 台灣電氣界 代表團 來訪

지난 11월 1일 午前11時 韓中經濟協力委員會 代表團員으로 來韓한 陳德義(台灣區電工器材工業同業公會 常務監事)씨등 一行 4 명이 本協會를 訪問했다.

이들 一行은 協會幹部들과 歡談하는 자리에서 兩國電氣界의 情報교환, 資料교환등을 願한다고 말하고 緊密한 協調關係가 이루어 지기를 期待한다고 말했다.

本協會側에서도 이들에게 전기연감등 자료를 傳達하고 台灣電氣機器製造協會서 발간하는 月刊雜誌 또는 刊行物등을 교환하자고 提議하였다.

이들은 電氣技術情報센터도 돌아 보고 電氣刊行物을 郵送하기로 約束했다.

이날 來訪한 人士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陳德義(台灣區電工器材工業同業公會

常務監事 長興電機製造股份有限公司 代表)

莊宏信(大同股份有限公司 海外處副處長)

周滄溟(士林電機廠股份有限公司 總經理)

梁文瑞(大同股份有限公司 韓國事務所 代表)

### 東京電氣管理技術者協會

#### 田山嘉一郎 專務一行來訪

日本 東京電氣管理技術者協會 田山嘉一郎專務 理事 行 3 名은 11월 2일 午前9時 大韓電氣協會를 방문, 金光錫事務局長과 歡談하였다.

이 자리에서 兩協會의 운영에 관한 意見を 교환하였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電氣保安擔當者에 대한 法定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技術者의 地位向上을 위하여 매우 有益한 事業이라고 말하고 日本도 가까운 將來에 韓國과 같이 法定教育制度를 導入하여 電氣技術者의 資質向上과 社會的 地位向上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金光錫事務局長은 이들 一行이 우리協會를 訪問해준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表하고 韓國에서 유쾌한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